■ 영광 칠산바다 이상 너울 피해

지난달 31일 새벽, 7~8m의 높은 너울이 휩쓸고 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포구. 어민들이 파도에 휩쓸려 좌초된 조기잡이 유자망 선박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영광=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쏴~' 山만한 8m 파도 어촌 삼켜

## 주택가 100여m까지 너울 밀려

## 대피 주민 "쓰나미인줄 알았다"

칠산바다 용왕(龍王)께서 대로(大怒)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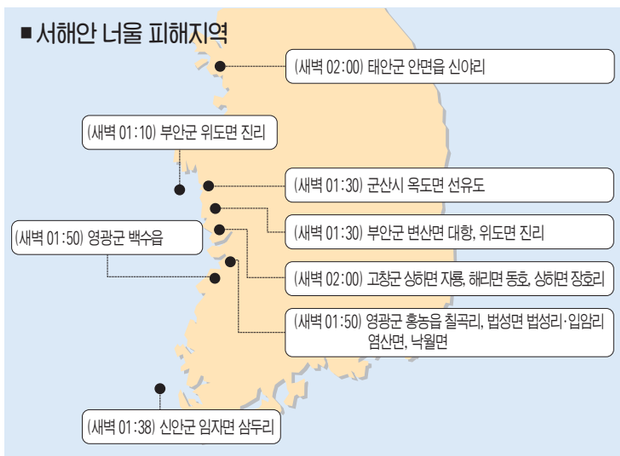
깊은 잠에 빠진 한밤중, 바람에 큰 너울이 굼실대면서 너른 칠산바다가 들끓었다. 신안 임자에서 영광 낙월·송이·안마군도를 거쳐 전북 부안 위도에 이르는 칠산연안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나락으로 변했다. 광포하게 요동치는 바다를 보면서 어민들은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에 빠졌다.

◇갑작스런 너울 순간=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어부 장영길(50·영광군 홍농읍 칠곡리)씨는 바다 저 멀리서 4~5초간 "쏴"하는 소리를 들었다. 작업을 마친 후 칠곡리 대항월항에 정박 중이었다. 배가 물속으로 빨려들어갈 정도로 바닷물이 빠져나가며 위험을 느끼자 순간적으로 닻줄을 잘랐다. 그 후 20~30분 후 8m 높이의 엄청난 파도가 몰려왔다. 장씨는 파도에 휩쓸려 배와 함께 2㎞ 떨어진 법성면 진내리 해안까지 떠밀려갔다가 겨우 생명을 건졌다.

비슷한 시간, 국지성 너울은 법성포 상가에도 들이닥쳤다. 포구에 턱을 괸 어선 20여 척은 넘실대는 파도에 침수·유실되거나 전파됐다. 갯벌로 혼탁해진 파도는 부둣가를 50㎝ 이상 차오르며 굴비 판매가게들을 덮쳤다. 법성포 상가와 주택가의 1층에 있던 냉장고·세탁기 등 1층에 가재도구와 살림살이도 모두 물에 잠겼다.

황문철(70·법성면 진내리)씨는 "70 평생 이런 파도는 처음 봤다. 신축건물 내부까지 뻘물이 들어와 굴비 96상자를 버렸다"고 말했으며, 장상현(46·홍농읍 칠곡리)씨는 "TV에서 본 쓰나미가 생각났다. 소낙비 같은 소리에 잠이 깨 가족 4명이 급히 몸만 빠져나와 언덕으로 대피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피해 생채기 곳곳=7~8m에 달하는 큰 너울 현상은 새벽 5시까지 6~7회 반복됐다. 바닷가에서 100여m 이상 떨어진 상가와 주택까지 파도가 밀려들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영광원전 냉각수 펌프 침수를 확인하던 직원 지모(38)씨가 물에 쓸려가 숨졌다.




법성면 법성리는 상가 120동이 침수됐다. 법성·홍농·백수·염산 등지에 닻을 내린 어선 55척이 전복·유실·전파·반파됐고,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등 김 양식시설 380책과 전복 양식장 64대(1대=5×5m) 등 수산증양식시설 4곳도 피해를 입었다. 이외 3 농가 6.8ha의 보리밭이 바닷물에 잠기고 ▲18 어가의 정치망 300m·안강망 130 틀·이각망 6틀이 유실됐으며 ▲홍농읍 칠곡리 부교 2개소 파손 ▲법성면 입암리 방조제 10m가 무너졌다.

◇긴급 복구 및 보상=영광군 공무원과 소방서, 경찰 등 350여 명은 소방차·청소차·크레인 등 장비 22대를 동원, 뭍에 유입된 각종 쓰레기 20t과 갯벌 30t을 치웠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또 침수 현장에 대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공무원 비상소집 및 피해예방 대책 수립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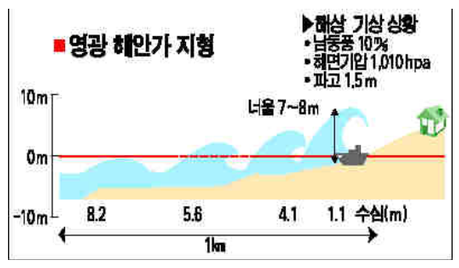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20억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유시설 복구에 필요한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신안 임자도에서 영광 전 지역에 걸쳐 있어 1일 오후 8시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영광=안현주·조익상 기자
ahj@kwangju.co.kr

## 이상 장파·만조 겹쳐 복합작용

〈長波〉 〈滿潮〉

### 너울 원인




큰 피해를 가져온 칠산바다의 너울은 '이상 장파'(長波)와 만조(滿潮)가 겹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음력 2월13일(네 물)인 지난달 31일 새벽 1시38분 영광지역의 예상 만조 수위는 544㎝. 하지만 해수면은 순간적으로 706㎝까지 올라갔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측정 자료엔 당시 신안 흑산도~충남 태안반도 안흥 바다에 일반적인 고유 파도 주기 이외에 5~20분 주기의 '이상 장파'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장파의 최대 진폭은 ▲영광 233㎝ ▲위도 239㎝였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얕은 칠산바다의 지형적 특성에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장파의 회절(回折)·반사·천수(淺水) 효과가 만조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상 너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도 폭풍 해일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풍속 14m/sec, 유의 파고 3m 이상)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였지만 실제론 ▲남동풍 초속 10m 이내 ▲해면 기압 1,010hpa 내외 ▲파고 1.5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지진 징후도 나타나지 않아서 지진 해일 가능성도 배제됐다. 이는 장쑤성(江蘇省) 등 중국연안 쪽 피해가 전무한 점을 미루어볼 때 타당하다.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전 내에 있는 '조위(潮位) 관측소'의 관측 결과 이날 해면수위는 706㎝로, 해일주의보(영광 기준 770㎝)나 해일경보(790㎝)가 발효될 상황이 아니었다.

칠산바다의 수심은 뭍으로부터 2㎞ 반경까지 10m 이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얕은 지형은 표면수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바람에 너울이 일기도 전에 바닥이 곧장 뒤집혀 큰 파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영광 법성포 어민들은 이런 광포한 바다를 달래기 위해 매년 음력 단오, 용왕제(龍王祭)를 지내며 뱃길의 무사와 안녕을 빌어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기상청, 특보 3시간 늑장

### 주민 피해 문제점

해일·태풍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기상청은 특보를 발효하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또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 스피커 등 음성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지역에 재난 방송을 한다.

영광군이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41곳에 재난 방송을 한 시간은 지난달 31일 새벽 4시57분. 이상 너울 발생 한 새벽 1시30분 이후 3시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신고가 새벽 1시44분에 들어왔지만 주민들의 동요가 큰 방송보다는 신속한 현장 파악과 처리가 우선이라고 판단, 신중을 기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은 그러나 이상 너울 현상이 새벽 5시까지 계속됐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난을 면치 못한다. 초동조치가 늦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법성면 법성리·진내리 26만여㎡를 매립, 시가지를 조성(공정률 40%)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 공사를 위해 쌓고 있는 방파제가 해류의 정상적인 흐름을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지, 높은 너울을 생기게 하는 등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니다"며 인재(人災) 가능성을 부인했다.

광주지방기상청 정연양 청장은 "이번 사건이 갖는 특이성과 심각성 때문에 철저하고 깊이 있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원참 〈7092〉 김종두

### 119 장난전화 없는 첫 만우절

쌍나팔

○…만우절(萬愚節)인 1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19 종합상황실' 사상 처음으로 거짓·장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 소방관들이 유례없이 편한(?) 하루.

○…광주시와 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시·도 소방대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모두 213건의 화재·구조·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장난이나 거짓 신고에 따른 출동은 전무.

○…만우절 장난·허위 전화는 2006년 23건·2005년 9건·2004년 70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지난 2004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다, 신고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위치정보 시스템 도입 영향이 크다고 분석.

○…반면, 황사로 인한 전국 휴교령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전해지자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는 "만우절 거짓말 아니냐"는 확인 전화가 쇄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